

국제유가, 60달러이상 폭등 가능성

KIEP, 원유증산 및 정제능력 부족으로 ... 달러화 강세 지속은 어려워

중동지역의 정정불안과 원유 생산능력 부족 등으로 하반기에도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가 평균 50-55달러의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미국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한국과 미국의 금리가 역전돼 자본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지만 국내 경제에 큰 타격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이준규 박사는 7월3일 <2005년 하반기 및 2006년 대외경제 여건과 주요 통상현안> 보고서에서 “중동지역 정정불안과 원유 추가 생산능력 부족, 정유시설 부족 등의 유가 상승요인들이 전혀 해소되지 않아 하반기에도 유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미국이 2005년 하반기에 3.5%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거나 이라크 지역의 테러, 태풍과 같은 돌발사태가 발생해 원유 생산에 실질적인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어 유가가 60달러를 돌파한 채 60달러대가 지속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준규 박사는 한-미 금리역전에 대해 “미국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연말까지 금리를 4% 수준으로 올릴 전망이다, 미국의 금리인상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급격한 자본유출이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망했다.

그리고 “한-미 금리역전으로 자본이 완만한 속도로 유출되면 원화 절상압력을 줄이고 부동산 가격안정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미국의 금리인상과 유럽지역의 경기회복 둔화 가능성 등으로 최근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하반기에는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문제가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 달러화 강세가 연말까지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화학저널 2005/07/05>